광주 북구의회 의원 간 '고성 · 막말'

구청 조직개편안 놓고 상호 이견 속 언쟁
무기명투표 반쪽 통과…신규 임용 미뤄져

광주시 북구의회가 구청(집행부)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호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

북구의회는 우여곡절 끝 조직개편안 가결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지만 이 마저도 반쪽짜리로 가결, 다음달 초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북구의회는 18일 오전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7개 중 5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구청 조직개편안인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20명 전원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전날 열린 임시회 1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과정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는데, 다른 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들어 본회의장에서의 이 안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가 부결시킨 조직개편안을 A 의원이 이 같은 규정과 함께 소속 의원 7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재의가 요구된 조직개편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구청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의원 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A 의원의 이 같은 요구로 해당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는 목소리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 일부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감정이 격해진 B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행정자치위원장) 사퇴하라"며 고성을 내뱉었다. B 의원의 목소리는 본회의장 밖 복도까지 울렸다.

이에 "깡패조직이냐" "장난하느냐" "공부 좀 더하고 오라"는 등 생각이 다른 의원 서로 간 막말이 오갔다.

고성과 막말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고점례 의장이 중재에 나서 자성을 촉구했다.

결국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찬성 11명·반대 9명으로 통과됐지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10명·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조직개편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이에 따른 정원 확대는 막은 셈이다.

이로 인해 다음달 초순 구청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신규 공무원 25명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회와의 소통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구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지난 18일 부결시켰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의원들에게 개편안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근거 없이 민선7기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협조해달라는 식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입법 예고 이전 의장에게 조직개편안 설명 일정을 결정했으며, 추후 상임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편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 세부사업이 명시된 설명자료를 배부했다"며 "이 같은 과정이 부족했다면 설명방법을 개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내륙서 붉은불개미 첫 발견 국내에서 7번째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18일 오후 대구 북구 매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전공노 광주 남구지부 "지방선거 보은성 채용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8일 "남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 지방선거 보은성 채용을 하려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 남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외부인력 채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구지부는 "김병내 청장은 취임 직후 비서실 인력을 포함해 외부인력 6명을 채용했다"며 "이는 타 자치구 채용규모나 민선 5, 6기와 비교해도 많은 편인데 최근에도 구보 제작을 이유로 임기제 공무원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일반임기제 8급 1명)을 채용공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인력 채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채용은 설득력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민원·현업부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원업무인 홍보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류와 면접으로만 채용이 이뤄져 전문성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될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엇보다 임기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는 1억원 정도인데 이는 신규인력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재정형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채용도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한 채용이라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은홍 기자

정박 바지선서 70대 선장 숨진 채 발견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7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목포시 산정동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 갑판창고에서 선장 A(7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원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선원들은 해경에 '전날 밤 선박에서 A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서 의사 뺨 때린 40대 입건

해남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해남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지인과 동행한 A씨는 의사의 진료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대기소 턴 3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인력 대기소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인력 대기소 사무실 방범용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침입,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력 대기소의 소개로 7월 한 달 간 일용직 노동에 종사했던 A씨는 '사장이 퇴근 전 책상 서랍에 돈을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으며, 훔친 돈을 은행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임형택 기자

편의점 직원 소주병으로 때린 여중생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한 중학생 A(15·여)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직원 B(31·여)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55)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빼앗아 2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뒤따라온 C씨를 돌멩이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서 수액주사 맞은 60대女 의식불명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7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달서구 용산동의 개인병원을 찾은 A(66·여)씨는 감기 증세로 영양제와 비타민C 수액 250cc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 "속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에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어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빠져나온 A씨는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